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으로 소외계층 자립 돕겠다”



최근 북한의 핵리스크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과 고용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요즘처럼 불경기가 체감된 적이 없었다는 불멘소리다. 자영업자 자산율은 80%가 넘었고, 일자리가 없어 곳곳에 한숨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활동도 참여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사회공헌에 아낌 없이 지갑을 여는 기업이 있다. 호남의 대표은행으로 자리 잡은 광주은행이다. 광주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 대비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더 좋은 은행’이라는 사회공헌 미션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호남 대표 은행인 광주은행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더 좋은 은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은행 전경.

◇ ‘진정성’과 ‘지속성’

광주은행은 임직원들이 연 4회 이상 지역 내 복지시설 및 결혼가정, 독거노인, 학생,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웃과 인연을 맺고 김장 나눔, 무료배식, 봉사활동 등 참여형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교육은 물론이고 매년 명절 소외계층이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000여 개에 달하는 생필품 상자를 직접 만들어 전달한다. 낯선 한국땅에서 적응을 어려워하는 2만여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문화교실, 친정나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등 나눔을 실천한다.

광주은행의 이러한 가치관은 경영방식에도 반영된다. 규모가 큰 대기업, 자산가 여신보다 우리 지역 직장인, 자영업자 등 서민고객들의 금융생활을 돕고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지역을 위해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소위 ‘밖에서 벌어서 지역민을 위해 쓰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금융계에서 볼 수 없었던 지방은행의 수도권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광주은행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소형 전략점포를 확대, 수도권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 최근 31번째 점포를 개점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이며 광주·전남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공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예향 광주를 위한 ‘도전’

광주는 예향(藝鄕)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있다. 하지만 정작 전통 미술인 한국화는 그 축에 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은행은 한국화의 미래지향적 비전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작가 또는 작품활동을 통해 한국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한국화만을 위한 공모전 ‘광주화루(畫壺)’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한국화 작가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5월 학술포럼을 시작으로 개최된 광주화루는 기존의 공모전이 학연이나 특정 사단에 의해 당선된 점을 미루어 심사위원과 작가명을 밝히지 않고,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화단에 혁명을 불러왔다. 또한 당선작가를 포함한 입선작가의 작품도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하며 당선작을 공모주최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작가들의 장기적인 사후지원까지 약속했다.

공모전의 시작부터 과정까지 섬세한 검토 끝에 문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광주은행은 광주화루를 지속적으로 주최하여 관심 밖에 있던 한국화가 문화예술의 중심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송종욱 회장

봉사활동

매년 당기순이익 10% 사회 환원 연 4회 이상 참여형 봉사 활동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친정나들이

중기 지원

“밖에서 벌어서 지역민 위해 쓰겠다” 서울·인천에 31번째 점포 개점 수도권 자금으로 지역 중기 지원

문화행사

한국화 공모전 ‘광주화루’ 개최 3차에 공정심사 등 화단에 혁명 작가들 장기적인 사후지원 약속

아동·청소년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32호점 선정 연간 5천여명 금융박물관 금융교육 뮤지컬 무료 공연·체험 기회 마련

에 설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 아동이 행복한 사회

광주은행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와 결혼가정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저소득 가정이나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학습환경을 개선해주는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사업, 장학금 지원, 금융박물관을 통한 금융교육 등 미래의 원동력이 될 아이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시작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2017년 40개 선정을 목표로 현재 32호점까지 지원되었으며, 공부방 선정 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멘토링으로 1호점 지원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광주은행 본점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금융박물관을 개관해 연간 5000여 명의 어린이가 금융교육을 받고 있으며, 눈의 나라 윈터랜드, 세계 각국의 물건 및 화폐를 전시 한 어라운드 더 월드, 대학교 극단 어린이 뮤지컬 무료 공연 등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와 지역 내 아동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광주은행의 미래, 광주·전남의 미래
광주은행은 단기적인 금전적 기부보다 지역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과 후원을 위주로 한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은행권 수익이 감소해도 사회공헌 비용만큼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지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것이 맞다”며 광주은행을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사랑해준 지역민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또한, 광주은행 창립 49년 만에 첫 차행 출신 은행장으로 취임한 송종욱 회장 역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상생과 동행을 핵심가치로 광주은행을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회장은 “광주은행은 지역의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며 “향후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각대 지원, 아동 및 다문화가정과 같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해 기존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연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은 매년 금융박물관으로 지역 어린이를 초청, 다양한 금융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광주은행이 마련한 문화교실에서 전을 부치며 한국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